

***예배시 마스크 착용관련 안내:** 주정부의 종교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이 형성된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여부는 성도 각자가 선택 (Optional)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1. 헌화:** 헌화표가 본당 안내 데스크와 친교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자원하시는 분들은 헌화표에 싸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개당 \$50 입니다).
- 2. 주중모임 정상화 안내:** 8월 첫주 부터 주중모임이(수요예배, 새벽기도회)정상화 됩니다.
- 3. 정기 제직회:** 7월25일 주일 2부 예배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위원장들은 서역 보고할 내용들을 21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회에 불가피하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란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위임 서명은 이번주 부터 받습니다).
- 4. 정기당회:** 2부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사랑방에서 모입니다.

<7월의 기도제목>

*환우들의 회복: 박재규, Rachel Varcoe, 정옥례.

<Sunday School 주일학교> 믿음으로 콩콩콩 29과 “예수님의 제자, 바울”

목사 고현권 (담임목회)

목사 김인광 (행정/EM/Youth/주일학교/방송)

구본석
권영제
김길수
이원중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인도: 고현권 목사
환영 <i>Welcome</i>		인도자 <i>Officiant</i>
▲영광송 <i>Doxology</i>	약 할 때 강함 되시네	다같이 <i>Altogether</i>
▲목도 <i>Invocation</i>	(사25:1-3) <i>Isaiah 25:1-3</i>	인도자 <i>Officiant</i>
▲신앙고백 <i>Confession of Faith</i>	(사도신경) <i>The Apostles' Creed</i>	다같이 <i>Altogether</i>
▲찬송 <i>Hymn</i>	27장 (새27장)	다같이 <i>Altogether</i>
기도 <i>Prayer</i>		구본석 장로 <i>Elder James Ku</i>
봉헌 <i>Offering</i>	369장(새218장)	다같이 <i>Altogether</i>
봉헌기도 <i>Prayer of Offering</i>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약 2:21-26 <i>James 2:21-26</i>	인도자 <i>Officiant</i>
설교 <i>Sermon</i>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믿음” <i>야고보서 강해 (14)</i>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광고 <i>Announcement</i>		인도자 <i>Officiant</i>
▲찬송 <i>Hymn</i>	377장 (새449장)	다같이 <i>Altogether</i>
▲축도 <i>Benediction</i>		고현권 목사 <i>Rev. Hyun Ko</i>
	▲표에는 일어 서시기 바랍니다.	
● English Service	“Be a Disciple of Jesus(3)” 1Corinthians 11:1	Rev. Inky Kim
● 새벽 기도회	사44:1-47:15	고현권 목사
● 수요 예배	믿음장 강해(7)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히11:13-16절	고현권 목사

“큰 글자를 쓴 이유”

고현권 목사

최근에 한국 야당의 30대 신임 당대표의 글씨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필체는 그렇게 반듯하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이 중국 당나라 때에 나온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문구를 들이대면서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인재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신체와 말, 그리고 글씨와 판별 능력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컴퓨터나 휴대폰 자판을 통해서 글을 쓰고 의사를 전하기에 펜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이 당연히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1500년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 당시에 대서자(代書者)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파피루스로 만든 얇은 판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 용지 자체가 매우 귀한데다 그 표면이 거칠어서 글자를 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게 그리고 예쁘게 글자를 써주는 대서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 대부분은 대서자를 통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편지 말미에 바울이 펜을 넘겨받은 후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글씨를 쓴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갈6:11). 왜 그랬을까요? 나이 들어 눈이 어둡고 손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일까요? 존 스토틀 목사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크고 볼품없이 글자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갈라디아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짓교사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볼품없는 글씨체로 쓴 것입니다. 여기에 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글씨체 때문에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여부가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7월

행사 및 모임

7/18
7/25

정기 당회
정기 제직회

성경공부 안내

새가족반 (주일)TBA
목요 여성 성경공부 (목)TBA
일대일 제자 양육자반 개인별 지정 시간
성경 통독반 (주일)TBA
화요 성경공부 (화)TBA
목요 성경공부 (목)TBA
Youth 금요성경공부 (금)오후 8:30
(google meet)

예배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EM/Youth 예배 오전 10:40
어린이 예배 오전 10:40
수요 방송예배 오후 8:00
<음성>새벽 기도(월-금) 오전 5:30
<영상>(토) 오전 6:00

주일 예배 기도	금주	내주
	구본석 장로	권영제 장로

매일 성경읽기 표

날 자	요일	본 문	날 자	요일	본 문
7/19	월	사 44:1-20	7/22	목	사 45:18-25
7/20	화	사 44:21-45:7	7/23	금	사 46:1-13
7/21	수	사 45:8-17	7/24	토	사 47:1-15

Youth/EM Daily Bible Readings

날 자	요일	본 문
07/19	Mon.	1 Corinthians 11:1-5
07/20	Tue.	1 Corinthians 11:6-15
07/21	Wed.	1 Corinthians 11:16-20
07/22	Thurs.	1 Corinthians 11:21-25
07/23	Fri.	1 Corinthians 11:26-34

헌금 통계

주일,감사,십일조, 선교,기타 헌금	TBA	지정 헌금	TBA	합계	TBA
------------------------	-----	-------	-----	----	-----